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5 제6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8쪽

기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지문 평가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상당하므로, 각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지문에서는 특히 개념들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다. 가령 여기서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설명들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가) 사회 - 경제학 -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 현상, 합리적 의사 결정,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 구매력, 실질 금리, 명목 환율, 기준 금리

(나) 사회 - 경제학 - 채감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디플레이션, 채감 인플레이션, 저물가

(가) 문단 1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 현상들은 대체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될 때 그 상품의 구매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합리적 의사 결정**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다.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졌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 자체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글의 초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좁혀지고 있다.

(가) 문단 2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로

1)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의 주관적 전망으로서,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 본격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뜻한다.

2) 먼저,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예상하여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한다. 둘째,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므로 물가가 상승한다. 셋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율인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앞당기므로 **수요 증가**에 의해 물가가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에 따른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 **백락 짚기** '기대 인플레이션', 즉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네 가지 경로가 개념들 간의 관계 형태로 주어졌다. 이렇게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지면 항상 유의하여 의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 ⇒ 기업의 생산 비용 ↑ ⇒ 물가 ↑
- ②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 ↑ ⇒ 재화의 가격 ↑ ⇒ 물가 ↑
- ③ 기대 인플레이션 ↑ ⇒ 실질 금리 ↓ ⇒ 수요 ↑ ⇒ 물가 ↑
- ④ 기대 인플레이션 ↑ ⇒ 명목 환율 ↑ ⇒ 수입품 가격 ↑ ⇒ 물가 ↑

☞ **주목** 이때 가계와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모두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가계, 기업 → 경제 주체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항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챙겨 두자.

(가) 문단 3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1) 한편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금리를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통화 정책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목 금리이자 정책 금리인 **기준 금리**를 조정하여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런데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므로, **경기 과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에는 기준 금리를 높여도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물가를 낮추기 힘들 수 있다.

▶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실질 금리'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 기준 금리의 조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백락 짚기** '실질 금리, 기준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주어졌다. 수식으로 정리하기에 용이하므로,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에도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질 금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비례한다[문단2-2].

$$\text{실질 금리} = \text{기준 금리} - \text{기대 인플레이션}$$

☞ **주목** '경기 과열'의 경우 '실질 금리'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점도 파악하자. 그래서 기준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실질 금리를 높이면 '물가'는 하락한다[문단2-2]. 즉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완화시킴으로써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text{경기 과열} : \text{기준 금리} \uparrow \Rightarrow \text{실질 금리} \uparrow \Rightarrow \text{물가} \downarrow$$

▶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기준 금리를 높여도 실질 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리기가 어렵다. '실질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기 과열' 시의 통화 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2) 경기를 활성화하려 할 경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실질 금리가 이미 낮은 상태에 있어 더 떨어질 여지가 적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실질 금리가 실효를 거둘 만큼 떨어지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반대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즉 '경기 침체 시의 통화 정책'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앞선 설명을 그대로 끌고 오면, 경기 침체 시 이런 방식으로 물가의 상승을 촉진하게 되겠다[문단3-1].

경기 침체 : 기준 금리 ↓ ⇨ 실질 금리 ↓ ⇨ 물가 ↑

➡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기준 금리를 낮춰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미 '실질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 주목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 앞서 '경기 과열'의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다면 그만큼 기준 금리를 높여서 실질 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상대적으로 '실질 금리'는 높아진다. 실질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 실질 금리를 낮추려면, 그만큼 기준 금리를 많이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나) 문단 1 저물가 국면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저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클 때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저물가 국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의 문단3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특히 '저물가'일 때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가)의 문단3-2].

(나) 문단 2 한국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

한국은행은 가계와 전문가 집단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전자를 더 우수한 예측 지표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뉴스에 반응하여 수정이 잦으므로 정책 수립을 위한 거시 경제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반면,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개인적 소비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물가에도 차례로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이다. 가계는 물가 상승이 예측될 때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기도 하다.

➡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거시 경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소비를 앞당기는데,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가)의 문단2-2].

※ 주목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시킬 때[→ 경기 침체 시의 통화 정책] 실질 금리를 낮추는데, 이 역시 수요를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을 촉진한다[(가)의 문단2-2]. 즉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로가 일치'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나) 문단 3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과 오차 발생의 원인

1) 기대 인플레이션은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되는데, 조사 당시의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근래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체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체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이 글의 초점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시의 물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 정도인 '체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애초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주관적인 전망에 해당했다[(가)의 문단2-1].

2) 그런데 가계의 체감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하는 경향이 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한 미래의 물가 상승률 예측에서 오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체감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그것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받고, 따라서 정확한 미래의 물가 상승률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3) 이는 가격이 하락한 품목보다 상승한 품목의 구매 경험이 물가 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매 인식 행태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러한 구매 인식 행태는 저물가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예측 오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물가**는 물가 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의 수가 늘어서 시작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구매 인식 행태는 저물가 시기가 시작될 때 체감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계는 '가격 상승'을 '가격 하락'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즉 '가격 상승'의 경우 이는 체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하락'의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저물가 시기가 시작될 때'는 '가격 하락'의 경우가 늘어나므로, 가계는 이를 별로 크게 체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물가 시기에는 '체감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나) 문단 4 기대 인플레이션 예측의 오차 발생의 원인

1) 또한 저물가 시기가 도래하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중이 늘어나며, 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낙관적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예측 오차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저물가 시기에는 '비관적 응답자'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들은 '낙관적 응답자'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따라서 이들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예측 오차는 더 커진다.

2) 물론 비관적 응답자의 인식은 경기가 둔화될수록 오히려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 보통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모두 부정적인 경제 현상으로 인식되므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응답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에 동반된다고 연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 이런 비관적 응답자들의 생각은 물론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

3) 그러나 저물가가 수년간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향 조정되고 그에 따라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주목 그러나 저물가가 수년간 지속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방향으로의 기대가 형성된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비관적 응답자의 수가 줄어들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된다.

▶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제로 '물가'가 낮아지므로, 이는 저물가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가)의 문단2-2).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1) 다음은 **갑국**의 **체감 인플레이션(A)**, **기대 인플레이션(B)**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C)**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이다.

	2010년	2013년	2017년
A	4.5%	3.1%	2.0%
B	4.6%	3.0%	2.0%
C	3.5%	2.0%	1.8%

◀ **맥락 짚기** (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체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주어진 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이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B는 C보다 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나)의 문단3-1), 특히 둘의 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둘이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장기적 물가 안정 목표를 2.5%로 설정하고 있던 갑국의 **중앙은행**은 2013년에 저물가 국면이 시작되자 디스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 금리**를 한 차례 낮추었지만, 별 실효가 없었다.

▶ 장기적 물가 안정 목표가 2.5%라면 2013년의 2%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기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가)의 문단3-2).

경기 침체 : 기준 금리 ↓ ⇒ 실질 금리 ↓ ⇒ 물가 ↑

※ **주목** 그런데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지문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출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 B]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모두 문제가 된다(가)의 문단3-2). 그런데 이 경우에는 B가 실제 인플레이션 → C]보다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기준 금리를 '인하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실질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어서, 더 낮추기가 어렵다. 즉 기준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된다(가)의 문단3-2). 그런데 이는 '실질 금리가 실효를 거둬들여 떨어지도록 기준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참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경우'와 '너무 낮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까다로운 요구라고 생각했다면, 글의 취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경우만 다루었다면, 기준 금리를 인하할 때에는 너무 높은 경우와 너무 낮은 경우를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3) 이후 저물가가 수년간 지속되자 갑국의 중앙은행은 2017년에 다시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 한다. 단, A와 C는 직전 대비 물가 상승률, B는 앞으로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뜻한다. 또한 실질 금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2017년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을 주로 참조하면 된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는 '비관적 응답자'가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나)의 문단4).

[10~13] 인문

로크의 개인의 동일성 이론과 리드의 반박

지문 평가

'개인의 동일성'과 관련된 두 관점을 구분하여 서술하는 글이다. '인간'과 '인격체'를 구분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한 로크의 이론과, 이를 리드가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당히 추상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므로, 내용의 복잡성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배운 대로 읽어 나가야 한다.

키워드

인문 - 서양 철학 - 개인의 동일성

개인의 동일성, 로크, 인간, 인격체, 기억, 리드, 동일성의 논리적 법칙

문단 1 개인의 동일성 유지

개인의 동일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는 도덕적,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로크**는 개인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하여 **의식**, 특히 **기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개인의 동일성'을 글의 초점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먼저 다루고 있다.

문단 2 로크의 개인의 동일성 이론

- 1) **로크**는 '인간'과 '인격체'를 구분하여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개별 **인간**은 비물질적인 **영혼**과 물질적인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려면 **영혼**과 **육체**의 **연속성**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 **맥락 짚기** 로크는 '인간'과 '인격체'를 구분하였는데, 이 구분이 '개인의 동일성 유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로크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므로, 영혼과 육체의 연속성에 의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 2) 그러나 **경험론자**인 **로크**의 입장에서는 다른 육체와 결합했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다시 결합할 가능성이 없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로크는 **개인의 동일성**을 개별 인간의 동일성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다만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 영혼이 결합해 있던 육체와 분리되어 다른 육체와 결합한다면 '연속성'이 함께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는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주목** 따라서 개인의 동일성 유지를 판단하려면, 그 기준으로 '인간'이 아닌 '인격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3) 이와 달리 개별 **인격체**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의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지적 존재로서 **기억**에 의해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10년 전 홍수의 경험을 기억하는 지금의 '나'와 10년 전 홍수 경험을 한 '나'는 **동일한 인격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인간과 달리 '인격체'는 영혼, 육체와는 관련이 없다.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 주목 그리고 '인격체'의 동일성은 '기억'에 의해 유지된다. 글의 초점과 직결되는 대목이므로 집중해야 한다[문단1-1]}. 경험주의자인 로크의 입장에서 는 동일성 유지를 판단할 때 그 여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문단2-2]}. 따라서 경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격체를 토대로 개인의 동일성 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로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인간의 동일성 유지	인격체의 동일성 유지
조건	영혼과 육체의 연속성	기억
경험적 판단	불가능	가능

문단 3 망각의 경우

1) 로크도 기억의 상실, 즉 망각의 문제를 인정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개인은 그 증상의 전후로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내가 10년 전의 홍수의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의 주장(기억을 매개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비판받을 수 있다.

2) 하지만 로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개인에게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기억 상실증 발생 전후의 개인은 동일한 인간일 수 있지만 별개의 인격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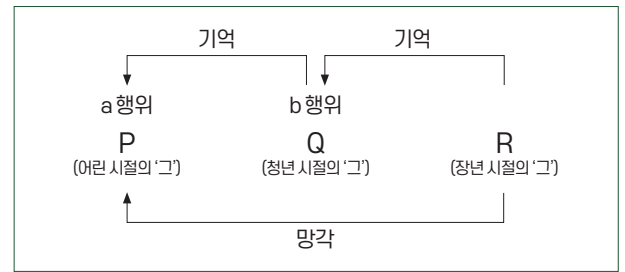
▶ '로크'의 반박이다. 기억 상실증을 전후로 개인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 전의 일로, 그 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주목 정리하자. 기억 상실증 발생 전후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연속성은 유지되므로 '동일한 인간'이다. 그러나 '기억'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인격체'다. 그리고 '개인의 동일성'은 '인격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기억 상실증 발생 전후의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다.

문단 4 리드의 반론 1

근대 철학자인 리드는 이러한 로크의 이론이 지닌 모순을 지적했다. a를 행한 어린 시절의 '그'가 청년이 되어 행위 b를 하고 장년이 되었는데, 청년 시절의 '그'는 a를 기억하지만, 장년 시절의 '그'는 b를 기억하는 반면 a를 잊었다고 해 보자. 로크에 따르면 a를 행하고 이를 기억하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그'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b를 행하고 이를 기억하는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의 '그'는 동일한 인격체이다. 그러나 a를 기억하지 못하는 장년 시절의 '그'와 어린 시절 행위 a를 한 '그'는 서로 다른 인격체가 된다. 이는 'P=Q, Q=R이면, P=R'이라는 **동일성의 논리적 법칙**에 어긋난다.

◀ 맥락 짚기 '로크'의 주장에 대한 '리드'의 비판이다.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리드'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가 주어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로크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기억'을 기준으로 하는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청년 시절과 어린 시절의 '그'는 동일한 인격체이다. 모두 a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 시절의 그' = 어린 시절의 '그'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의 '그'는 동일한 인격체이다. 모두 b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가 성립한다.

▶ 반면 장년 시절과 어린 시절의 '그'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다. 장년 시절의 '그'는 어린 시절의 '그'가 행한 a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억'의 매개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어린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가 성립한다.

※ 주목 그런데 '동일성의 논리적 법칙'에 따르면 '청년 시절의 그' = 어린 시절의 '그'와 '청년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가 성립한다면, '어린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도 성립해야만 한다. 즉 '어린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와 '어린 시절의 그' = 장년 시절의 '그'가 동시에 성립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리드의 지적의 핵심이다.

문단 5 리드의 반론 2

한편 리드는 로크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증거와 동일성의 주체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억은 과거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개별 인격체의 동일성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증거이지, 과거 경험에 대한 '나'의 기억이 '나'를 과거 경험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리드의 두 번째 비판이다.

※ 주목 헛갈리기 쉬우므로 표현에 유의하고, 결론만 분명히 행할 수 있도록 하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증거'와 '동일성의 주체'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나'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현재의 '나'가 과거 경험의 주체라고, 즉 '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말을 도둑맞은 사람이 어떤 말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말이라고 주장할 때, 눈앞의 '이 말'과 도둑맞은 '그 말'이 유사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동일성의 증거로 양자의 유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동일성의 증거'라는 표현에 유의하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증거'와 '동일성의 주체'를 혼동한다는 ㉔의 비판을 참고해야 한다 [문단5].

▶ '동일성의 증거'로 '도둑맞은 그 말'과 '눈앞의 이 말'의 유사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양자가 유사하다는 증거에 의해 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말은 '이 말'과 '그 말'이 유사하다는 판단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주목 그러나 양자가 유사하다는 증거가 '동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자. '눈앞의 이 말'이 '도둑맞은 그 말'과 유사하다면 양자가 동일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두 말의 동일성이란 '유사성'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를 그대로 ㉔에 적용해 보자. '동일성의 증거'로 기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동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동일성은 기억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기억이 인격체의 동일성에 대한 증거로 주장되기 이전에 과거 경험의 주체인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㉔번 선지는 적절하다.



[14~17] 기술

객체 인식 기술과 분류 모델의 학습

지문 평가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객체 인식 기술'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중에서 '분류 작업'이라는 단계에 필요한 '기계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키워드

기술 - 컴퓨터 과학 - 객체 인식 기술

증강 현실, 가상 현실, 객체 인식 기술, 화소, 벡터, 클래스, 분류 모델, 기능도, 매개 변수, 기계 학습, 초기 분류 모델, 학습 이미지, 학습, 최대 기능도 추정법

문단 1 증강 현실

- 1) **증강 현실**은 눈앞의 **현실 이미지**에 관련 정보를 **가상의 증강 이미지** 형태로 덧입혀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온전히 가상만을 보여 주는 **가상 현실**이 시야를 완전 차단하는 **몰입형 환경**에 속하는 데 비해, 증강 현실은 안경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의 배경과 객체들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비몰입형 환경**에 속한다.

➡ 증강 현실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 장치를 통해서 현실 이미지와 그 위에 '덧입혀진' 증강 이미지를 본다.

Ⓢ 백락 짚기 여기서 '덧입혀진'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어야 한다. 해당 문장에서는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구분하는데, 가상 현실은 가상 이미지만 보여 준다면, 증강 현실은 현실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가상 이미지를 '덧입혀' 보여 준다.

증강 현실	가상 현실
현실 이미지 + 증강 이미지	가상 이미지

- 2) 이렇게 증강 이미지를 만들어 덧입히기 위해서는 눈앞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객체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증강 현실의 핵심은 '증강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객체 인식 기술'이다. 이 기술의 원리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곧 이 글의 초점이다.

문단 2 객체 인식 기술

- 1) 객체 인식을 하려면 먼저 현실 이미지에서 객체가 위치한 곳에 관심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어 그 영역에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들인 **화소**들 간의 **색상값 차이**를 계산하여, **객체의 특징** 관련 정보들을 **벡터**라 부르는 다차원의 숫자 배열로 기록해 둔다.

Ⓢ 백락 짚기 특정 기술에 대한 과정이 전개될 때에는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해당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단계의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를 문제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첫 번째 단계다. 먼저 '관심 영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 두 번째 단계다. 관심 영역 → 어떤 객체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객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영역에서 객체에 관한 정보를 '벡터'의 형태로 기록한다.

- 2) 분류해야 할 객체들의 종류를 **클래스**라 할 때, 클래스의 개수가 많거나 개별 클래스가 담아야 할 특징들이 복잡할수록 보다 높은 차원의 벡터가 필요하다.

☞ 맥락 짚기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이런 형태의 정보는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클래스의 개수 ↑, 개별 클래스의 복잡성 ↑ ⇒ 벡터의 차원 ↑

- 3) 이렇게 얻은 벡터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 작업을 거치면 그 정보로 증강 이미지를 만들어 현실 이미지에 덧입힐 수 있다.

➡ 세 번째 단계다. 각 관심 영역마다 '벡터'가 기록되면, 이를 토대로 그것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현실 세계의 객체들'을 인식함으로써 증강 이미지를 만들어 덧입힐 수 있는 것이다[문단 1-2].

※ 주목 지금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심 영역 설정 ⇒ 객체 정보를 벡터로 기록
⇒ 벡터 분류 작업 ⇒ 증강 이미지 생성

문단 3 분류 모델에 의한 분류 작업

- 1) 분류는 매개 변수들을 포함하는 **분류 모델**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 고양이, 늑대의 세 종류를 **클래스**라 할 때, 어떤 벡터를 입력하면 분류 모델은 매개 변수들을 벡터에 적용하는 **계산**을 거쳐 각 클래스들에 대한 가능성을 얻는다.

➡ 글의 초점을 객체 인식의 단계들 중에서도 '분류 작업'으로 좁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분류 상황이 예시로 주어졌으니 잘 쫓아보자. '개, 고양이, 늑대'는 객체들의 종류인 클래스에 해당하며[문단 2-2], 분류 작업은 각각의 벡터들이 적절한 클래스로 올바르게 분류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벡터를 '분류 모델'에 입력하면 각 클래스들에 대한 '가능도'를 얻는다. 즉 하나의 벡터를 입력하면 매개 변수들을 거쳐, '개'에 대한 가능도, '고양이'에 대한 가능도, '늑대'에 대한 가능도, 이렇게 세 개의 가능도를 얻는 것이다.

- 2) **가능도**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벡터가 나타날 확률이 아니라, **매개 변수**들에 의해 정해지는 개별 클래스의 확률 분포에 따라 **벡터**가 해당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 주목 '가능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A가 아니라, B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B가 A와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벡터가 나타날 확률[→ A]은 매개 변수와 무관하다. 그런데 가능도는 B이므로, '매개 변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분류 모델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 어떤 벡터를 입력했을 때 각 클래스에 대한 가능도들도 달라지는 것이다.

- 3) 클래스별 가능도를 모아 (개, 고양이, 늑대)의 형태로 표현할 때, 어떤 벡터를 분류 모델에 넣어 (0.7, 0.2, 0.4)를 얻었다면 이 벡터는 가능도가 가장 큰 개로 분류된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입력된 벡터는 그중에서 가장 가능도가 높은 클래스로 분류된다.

문단 4 기계 학습을 통한 분류 모델의 정확도 향상

- 1)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기계 학습**을 거쳐야 한다. 먼저 어떤 벡터를 입력하더라도 모든 클래스의 가능도가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매개 변수들을 구성한 **초기 분류 모델**을 만든다.

☞ 맥락 짚기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이제는 '객체 인식'의 과정이 아니라, 그중에서 '분류 작업'에 필요한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계 학습'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다.

➡ '초기 분류 모델'의 경우 어떤 벡터를 입력해도 동일한 가능도들이 출력되므로, 해당 벡터가 특정 클래스로 분류될 수 없다. 예컨대 (0.5, 0.5, 0.5)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다.

- 2) 그리고 정답을 아는 다량의 **학습 이미지**들로 각각 벡터들을 만든 후 분류 모델에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벡터를 입력할 때마다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따라 매개 변수들을 조정하여 클래스들의 확률 분포를 바꾸는 **학습**을 진행한다.

➡ 이어서 초기 분류 모델에 '학습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벡터들을 입력한다. 여기서 학습 이미지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들이다. 즉 어떤 객체로 분류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 여기서 '학습'은 각 학습 이미지를 올바른 정답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왜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설명을 떠올리자[문단 3-2]. '매개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가능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만일 그 벡터를 다시 입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능도가 이전보다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정답이 아닌 클래스들은 가능도가 낮아지도록 함께 조정한다.

➡ '초기 분류 모델'은 클래스별 가능도가 모두 '동일한' 값이 되도록 한[문단 4-1]. 그런데 이렇게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면, 해당 학습 이미지는 다음에는 올바른 클래스로 분류될 것이다.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능도가 가장 높아질 테니 말이다[문단 3-3].

- 4) 다만 조정은 한 번에 **미세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매개 변수 변화량을 키우면 학습이 빨리 끝날 수 있으나 세밀함이 떨어져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도는 낮은 상태에 있다.

☞ 맥락 짚기 다만 조정은 미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잘 정리하자. 즉 '매개 변수 변화량'은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다.

매개 변수 변화량 ↑ ⇒ 학습 소요 시간 ↓, 정확도 ↓

☞ 참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매개 변수 변화량이 정확도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가 의문일 수도 있다. 학습 이미지의 경우를 생각하면, 학습에 의해 해당 벡터를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매개 변수 변화량과 무관하게 항상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학습을 거친 '분류 모델'은 학습 이미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들도 분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이미지만을 정확하게 분류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매개 변수 변화량'을 적절한 값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기> 문단

1) 다량의 **학습 이미지**로 기계 학습을 거쳐서 사과, 배, 감, 참외를 분류하는 우수한 품질의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초기 분류 모델’** X를 구성했다.

❖ 맥락 짚기 ‘초기 분류 모델’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계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문단4를 주로 참고하도록 하자.

➡ X는 ‘초기 분류 모델’이므로 어떤 벡터를 입력하더라도 사과, 배, 감, 참외의 가능성이 동일하게 얻어진다. 즉 특정 클래스로의 분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

2) 기계 학습의 맨 처음에 정답이 사과인 **학습 이미지** A가 사용될 예정이고, 이어 정답이 감인 학습 이미지 B가 사용될 예정이다. 단, 가능도들은 (사과, 배, 감, 참외)의 형태로 표현하고, 기계 학습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 ‘기계 학습’에서는 학습 이미지들로 각각 벡터들을 만들어 그것을 ‘분류 모델’에 순차적으로 입력한다[문단4-2)].

➡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따르면 A의 벡터가 입력되면, 다음에 A가 입력될 때 ‘사과’의 가능도는 높아지고, 나머지의 가능도는 낮아지도록 매개 변수들이 조정된다[문단4-3)].

∴ 그런데 이렇게 조정되었다고 하여 ‘임의의’ 벡터들이 ‘사과’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A의 벡터가 ‘다시’ 입력됐을 때 그것이 ‘사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 이후 B의 벡터가 입력되면, 다음에 B가 입력될 때 ‘감’의 가능도는 높아지고, 나머지의 가능도는 낮아지도록 매개 변수들이 조정된다.

[22~26] 현대시

(가) 「조그만 사랑 노래」

— 황동규 —

작품 평가

제목 그대로 사랑에 관한 노래이다. 실연의 아픔을 드러내는 슬픈 사랑의 노래이다. 자유가 억압된 군부 독재 시대에 창작된 작품임을 고려하면, 암울한 시대의 슬픔을 환기하는 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토막 1 이별을 통보받음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 과거와의 단절을 통보받았다는 말이다. ‘어제’라는 시간을 ‘동여맨’이라는 표현과 결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목을 통해 이 시가 사랑에 관한 노래임을 고려하면, 사랑이 과거로만 그치게 된 상황, 즉 연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이해할 수 있다.

➡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군부 독재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상황을 암시하는 시구라고 볼 수도 있다.

토막 2 화자의 심경이 투영된 풍경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 ‘그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고 하여, ‘그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길 아닌 것들’조차 사라졌다고 하여, 실연으로 인한 단절감과 상실감을 심화하고 있다.

➡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대’를 자유로 본다면,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 현실과 그로 인해 방향을 잃고 만 삶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의 시구들 역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 화자가 ‘그대’와 함께 친숙하게 누렸던 것들이 실연 후에는 화자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환기하고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하늘에는 이미 금이 가 버렸다. ‘깨어진 금들’은, ‘그대’와의 관계가 깨지고 벌어져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과 그로 인해 새겨진 마음의 상처를 시각적으로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어져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눈’이 날리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처지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눈’이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는 것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눈 뜨고 떨어져 한없이 떠다니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을 환기한다.

➡ 이 역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자유를 빼앗긴 억압적 현실로 인한 심적 방황과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만분가」

- 조위 -

—✓— 수록 자료 평가

이 작품은 작가가 연산군 재위 중 사회(士禍)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느낀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이다. 제목에 쓰인 '만분(萬憤, 온갖 분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는 말처럼, 정치적 변고를 맞아 유배에 처한 작가가 품은 복잡다단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오동나무 저녁 비에 외기러기 울며 갈 제

→ 해 저문 저녁에 오동잎에 빗발이 떨어지고 외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에
 ➡ 청각적 심상과 가을의 계절감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심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울며 날아가는 '외기러기'의 울음소리를 통해 쓸쓸하고 슬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오동나무 저녁 비'도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는데,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비 오는 저녁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오동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큰 나무여서 나뭇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난다.

고향 만 리 길이 눈에 압압(= 기역 속의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밝히는 듯

➡ 유배지에서 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만 리 길'은 실제의 거리보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리[→ 유배된 처지에서 마음대로 유배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백(李白)의 시(詩) 다시 읊고 사무친 한(恨) 생각하니

➡ 여기서 인용된 '이백의 시'는 이백의 시 '망부산'이다. 멀리 헤어져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은 작품이다.

화산(華山, 어떤 여인이 자신을 그리워하다 죽은 남자를 뒤따라 죽었다는 전설을 담은 시에 나오는 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 화산에서 우는 새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이별로 인해 괴로워하는 화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망부산(望夫山, 멀리 헤어져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이백의 시에서 배경이 되는 산) 앞에 석양이 거의로다

➡ 화자는 이백의 시를 떠올리며, 임금에게 내쳐져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연군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眼力, 시력)이 다했던가

➡ '안력'이 다할 만큼 애타게 임을 기다리다 날이 저무는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담고 있다. 날이 저무는 시간은 오늘 하루도 헛되이 지나갔다는 의미를 환기하고, 그것을 통해 임을 기다리던 화자의 좌절감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낙화(落花) 말이 없고 벽창(碧窓)이 어두우니

➡ 떨어지는 꽃은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떨어지고 푸른 비단을 바른 창은 어둡다. 슬프고 적막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입 노란 아기 새들 어미도 그리는가

➡ '아기 새들'은 정치적 변고로 고통을 겪는 사대부들을, '어미'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대상, 곧 임금[→ 현재의 임금인 연산군이 아니라, 그러한 변고를 겪게 하지 않았을 선대 임금, 즉 성종]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팔월 바람이 빗집을 걷어 내니

빈 등지에 쌓인 일이 재난을 못 면하네

➡ 음력 팔월에 부는 큰 바람은 초가을에 흔히 닥치는 태풍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큰 바람이 초가집 지붕을 걷어 내니 그 아래에 있던 빈 등지의 일들은 재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가와 동료들에게 닥친 정치적 변고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생리사별(生離死別, 살아 있을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죽어서는 영원히 헤어짐)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三千丈) 백발(白髮)이 하룻밤에 길어졌네

➡ '생리사별'의 슬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삼천 장[→ '장'은 사람의 키 또는 대략 3미터의 길이를 뜻하니, 삼천 장은 대략 5천~9천 미터에 달한다.]이나 길어졌다는 뜻이다.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이다.

풍파(風波)에 현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이

강가 지는 해에 배는 무사한가

➡ '풍파에 현 배'를 함께 타고 있던 벗들은 어려움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던 정치적 동료들을 의미한다. 유배에 처해진 작가는 '강가 지는 해에 배는 무사한가'라는 말로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밀거니 당기거니 거센 물살 겨우 지나

만 리 험한 길을 가고자 바라보더니

➡ 서로 힘을 합쳐[→ '밀거니 당기거니'] 위기를 극복하면서[→ '거센 물살 겨우 지나'] 커다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 '만 리 험한 길을 가고자 바라보더니']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바람에 떠밀려 흑룡강에 떨어진 듯

➡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천지(天地) 끝이 없고 기러기 무정하니

➡ '천지 끝이 없고'는 끝없는 천지의 이쪽과 저쪽에 놓여 서로 멀리 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앞에서의 흐름과 이어져 있다고 본다면 벗들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뒤의 흐름을 봤을 때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 '기러기 무정하니'는 임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과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 '기러기'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흔히 소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기러기'는 '무정하'게도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다.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겠구나

➡ '옥 같은 얼굴'은 임[→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다가 말겠구나'라는 말은 '기러기'가 '무정하'여 소식을 전해 주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거나 다시 만나거나 하지 못하고 임을 그리워하기만 하다가 끝나겠다는 한탄을 나타낸다.

(중략)

그래도 한 마음은 대궐에 달려 있어

➡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임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추한 처소에서 님 향한 꿈을 깨어

➡ '누추한 처소'는 유배지를, '님 향한 꿈'은 연군지정을 의미한다.

한 점 서울을 눈 아래 바라보고

➡ 서울이 '한 점' 크기로 보인다고 한 것은 유배지와 거리 때문이지만, 서울이 실제로 보일 리는 없으니 이는 유배지에서 서울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릇되든 옳게 되든 이 몸의 탓이던가

➡ 화자는 서울의 일이 그릇되든 옳게 되든 자기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비친다.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天道, 하늘이 낸 도리나 법) 막막하니 물을 길
 이 전혀 없다

➡ 서울의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사를 결정

하는 '천도'를 알면 서울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화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六十四卦)[→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복희씨 등이 만들었다는, 길흉화복을 알려 준다는 점괘] 천지 만물 삼긴 뜻을

▶ '천도',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삼긴 뜻'은 모두 세상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화자는 그것들을 통해 서울의 일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다.

주공(周公, 공자가 후세의 모범으로 삼았던 어진 인물)을 꿈에 보어 자세히 묻고 싶네

▶ '주공'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역사 속 인물이니 만날 수 없지만 화자는 그를 꿈에서라도 만나서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삼긴 뜻'을 자세히 묻고 싶다고 한다. 이는 서울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 '하늘'의 '높은 뜻'은 앞서 나왔던 '천도',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삼긴 뜻'과 같이 세상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알지 않겠느냐

▶ 지극히 높은 하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 하늘은 아무 말이 없으니 화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화자는 '구름 위에 나는 새'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므로 낮은 땅에 거하고 있는 자신과 달리 하늘의 뜻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역시 주공을 꿈에 만나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는 앞의 시구처럼, 서울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와 이내 가슴 산(山)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어 옹골

▶ '이내 가슴'이 '산'과 '돌'이 되어 이곳저곳에 쌓여 있고 '비'와 '물'이 되어 이곳저곳에서 슬픈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화자의 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산'과 '돌', '비'와 '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변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슬프다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아무나 이내 뜻 알 이만 있으면

백세 교유(百歲交遊) 만세 상감(萬世相感)[→ 평생을 사귀고 영원히 서로의 마음을 나눔]하리라

▶ 누구든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평생 사귀며 영원히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의 원통한 심정을 이해받고 싶다는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이 감